

6월 1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은행주 부진속 혼조..다우 0.09%↓	17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음. 다우 지수는 금융주 하락으로 약세를 이어간 반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선전으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7.49포인트(0.09%) 하락한 8,497.1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8포인트(0.66%) 상승한 1,808.06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26포인트(0.14%) 내린 910.71을 각각 기록했음.
금융규제 개혁안 공식 발표..연준 감독 권한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금융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감독기구 재편과 소비자 보호기구 및 감독기구간 조정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음.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한 85쪽 분량의 `새로운 토대: 금융감독 및 규제 재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재무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무부 산하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을 통합, 가칭 `전국 은행 감독청(NSS)`을 설립하기로 했음. 재무부의 경우에는 장관이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금융당국 위원회(council of regulators)`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고, 연준에 대해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준비금 유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소비자물가 상승폭 전망 하회..인플레 우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3개월만에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망보다 적었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반등을 이끌었음. 5월 에너지 가격은 0.2% 올랐고 이는 지난 2월 이후 첫 상승세임. 반면 식료품 가격은 0.2%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0.1% 상승했고 이는 월가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임.
유가 소폭 상승	국제 유가는 등락 끝에 소폭 상승세로 마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56센트 오른 71.03달러에 마쳤음.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고 달러 약세도 유가 상승을 지지했음.

제목	주요 내용
日 미쓰비시車, 300만엔대 전기차 출시 계획	미쓰비시차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i-MiEV의 가격은 약 460만엔대로 정부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320만엔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됨. 그러나 휘발유 자동차 가격 대비로는 두배에 달하는 규모임. 미쓰비시는 i-MiEV에 기반해 더 작은 배터리를 장착, 현재 i-MiEV보다 저렴한 모델 출시를 계획.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지하는 생산비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i-MiEV의 230킬로그램(kg)의 배터리대신 140~150kg의 배터리를 활용해 신차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계획임.
韓 부도위험지표 연일 오름세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 외평채 5년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190bp를 기록. 이달 초 130bp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2주 동안 약 55bp가량 상승. 특히 최근 이틀 동안 15bp씩 경추 뛰었음.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국 외평채 5년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190bp를 기록. 이달 초 130bp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2주 동안 약 55bp가량 상승. 특히 최근 이틀 동안 15bp씩 경추 뛰었음.
정부, 1~5월 133조 재정 투입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올들어 5월 말까지 재정집행 관리대상 257조7,000억원중 132조9,0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음. 이는 당초 집행 계획 규모인 119조7,000억원 보다 11%(집행율 111%) 많은 것. 연간 진도율도 51.6%를 기록, 계획(46.4%) 대비 5.1%p 초과 달성했고, 상반기 종료시점인 이달말의 목표치 60.6%를 9%p 남겨놓고 있음.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금융시장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에 대해 43조원을 투입해 122.9%의 집행율을 보였음.
폐열을 전기로..` 삼성, 고효율 신소재 개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18일 열전(熱電)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소재인 인듐셀레나이드 (In ₄ Se _{3-x})를 개발했다고 밝혔음. 열전소재는 열을 전기로 또는 전기를 열로 전환할 수 있는 소재로 현재 와인셀러 등의 제품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음. 또 자동차 배기구, 발전소, 공장 등 폐열이 방출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변환효율이 낮아 응용이 극히 제한적. 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발한 열전소재는 최대 12%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